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성도들을 위한 '2020 각 부문 우수 시상식'과 응답과 축복의 기회 '작정 다니엘철야' 기도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며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03 기획특집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을 발견해 깨우쳐 가니 질병이 치료되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은 고리연 집사.

04 간증

나의 반석이신 주님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거식증을 치료받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신속히 치료되는 등 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39호 2021년 3월 1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생명을 주는 소리

양은 청력이 발달하여 조금만 부스럭거리도 놀라 달아나지만

자신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목소리는

잘 알아듣고 따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도

속지 않고 도망하지요.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 양들은

물과 목초가 넉넉한 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소리는

오직 진리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받음은 물론,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단신

### '2020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 비대면으로 진행

지난 2월 28일 주일 저녁예배 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 안에서 충성되게 감당한 성도들을 위한 '2020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0명이 우수 지역장·조장·구역장, 위원회와 상근부서 등의 부문 대표자로 수상했다.

특히 부흥한 중국 교구에서 많은 수상자가 나왔는데, 우수 교역자로는 오인숙 전도사(중국 2교구장), 지역장에는 김일화 권사, 조장에는 조성범, 오은혜 집사(중국 2교구), 구역장에는 정명숙 집사(1대대 9교구), 박준애, 윤희국 집사(중국 1교구), 원장순 권사, 윤정옥, 정용혁 집사(중국 2교구)가 수상했다.

이 외에 류순엽 권사(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서상기 장로(주사랑선교회 부장), 강동호 집사(아동주일학교 부장), 이현미, 선지영 권사와 헤어메이크업팀(예능위원회), 미화부(예배국), 조영순 권사(기도제물연합회), 한숙희 권사(사론선교회), 이은혜 집사(GCN방송)가 수상해 상패와 부상이 전달됐다.

### 온택트 '작정 다니엘철야' 기도회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간 '작정 다니엘철야'가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진행된다.

특히 성전 이전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위한 1일 릴레이 금식이 함께 진행되는데, 금식은 자원하는 성도들에 한해 교구 순번으로 이어지며 택일하여 동참할 수도 있다.

우리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척 때부터 매일 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다니엘철야를 통해 각종 마음의 소원에 응답 받고 축복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수많은 성도가 사모함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며(단, 금요일은 금요일철야예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GCN 방송과 인터넷(www.gcntv.org) 생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선악과를 두신 섭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5~17)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고 오묘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어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나요?”라고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니 사망의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악과를 두시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음에도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은 외모가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었지만 지식적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았습니다. 갓난아기가 뇌세포 안에 기억장치가 있지만 아직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이 없어서 본능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아담도 처음 생령으로 지음 받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의 지식이나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자체인 영의 지식을 아담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며 에덴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지요. 이로써 생령 아담은 마침내 놀라운 지식과 지혜로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창 2:19), 많은 자녀를 낳으며 번성해 갔습니다(창 1:28, 3:16).

에덴동산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이러한 과정이 몇 절 말씀으로 축약돼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 이끄신 뒤 곧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멸망의 길로 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 경작의 역사는 6천 년밖에 되지 않는데 수십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는 첫 사람 아담이 창조된 이

후의 역사를 의미하므로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산 세월을 포함하면 참으로 오랜 세월입니다. 그러나 인간 경작의 역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아 에덴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뒤의 세월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 무수한 세월은 인간 경작의 역사 속에 포함되지 않지요. 이 세월 동안 지구의 지각과 지질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각종 생물도 변식 또는 멸종의 과정이 있었기에 이러한 흔적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금하신 것이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창 2:16~17). 그러나 무수한 세월이 지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 2. 자유의지 가운데 불순종한 아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까지는 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사단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니 결국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창 3:1~6).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단이 에덴동산에 있는 뱀을 사주했을까요? 사단은 실질적인 형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따라서 마치 공중에 날아다니는 전파와 같아서 에덴동산에 있는 뱀의 생각을 주관해 미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에덴동산에서는 사람이 모든 동물과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뱀은 사랑스럽고 보기에 좋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답변한 것입니다.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창 2:9) 과일은 먹어도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한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한 증거이고, 분명히 믿지 못한다는 의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답변을 들은 뱀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지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재차 유혹합니다.

사단이 하와의 생각에 욕심을 불어넣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곧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만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뿐 아니라 남편인 아담까지 먹게 했지요. 뱀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하니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틈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정녕 죽게 되었습니다(창 2:17).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며 오직 빛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분이므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령이었을 때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으나 영이 죽으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자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삯인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롬 5:12). 부모의 기를 통해 모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든 것이 닳아 나오듯 인간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그의 죄성은 후손에게 자연스럽게 유전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원죄’라고 하며, 불순종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뿐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죄를 지어 저주받으니 사람이 다스리던 땅,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나 모기같이 질병을 가져다주는 독한 벌레가 생겨났으며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 사람이 땀 흘려 밭을 갈아야 식물을 먹을 수 있었지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롬 8:20~22).

뱀은 더욱 큰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창 3:14)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고 땅속에 있는 새나 곤충, 개구리나 쥐를 먹습니다. 여기서 흙이란 이 땅의 흙이 아니라 영적으로 흙으로 창조된 사람을 말하며(창 2:7), 뱀은 원수 마귀 사단을 뜻하지요(계 20:2). 즉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3.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동산의 모든 것은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행복이라는 것

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의 반대인 불행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지요. 질병이나 죽음, 사고 등을 겪어 본 일이 없으니 슬픔과 고통을 당한 일도 없었고 사망이 없으니 이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상대성이란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의 참된 가치를 알려면 그와 반대되는 것을 알고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태어나서 전혀 아파 본 적이 없다면 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지도 모르고 건강에 대한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고생해 보아야 풍성한 음식에 감사할 수 있고, 악이 있어야 선이 얼마나 좋으며,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이 없으면 부요함에 감사할 줄 모르며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좋은 줄도 모르지요.

인류의 시조 아담은 처음부터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해 얻은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본 일이 없었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 추위와 더위, 죽음, 이별,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 이러

한 것들을 경험한 후에는 에덴동산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지요.

만일 아담이 슬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에서 행복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상대성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고 그로 인해 불행과 고통을 겪어봄으로 상대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아담은 행복과 불행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우칠 수 있었으며,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놀라운 섭리에 감탄하며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와 기쁨만 있게 되지요. 장차 영화로운 천국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두신 섭리를 깨달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가운데 깨우쳐 주시니 갑상샘 기능항진증을 치료받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고리연 집사 (4청년선교회, 31세)

2020년 6월, 갑자기 몸이 이상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 지기도 하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찼으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지요.

밤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니 불안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매우 피곤했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았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는 ‘갑상샘 기능항진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서 수치를 내리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믿음으로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니엘철야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평소에는 두근거림이 많이 느껴졌지만 기도할 때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불편함과 서운함이 많고 항상 남의 탓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면 될 것을, 모든 게 내 탓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깨우쳐 가니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

해져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녹음 파일)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을 때마다 몸과 마음이 뜨겁고 특히 목 주변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뜨거운 불이 임하는 체험을 하니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두근거림이나 화장실에 많이 가는 것, 그리고 손 떨림 증상들은 빠른 시간 내에 없어졌고 몸은 점점 호전되어 갔습니다.

10월 검사에서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12월에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지요. 기도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치료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검사 결과지

ESA	Thyroid 3종	363.7	ng/dl	H	60 - 170	05/30 14:14
FT3		8.5	ng/dL	H	0.8 - 1.78	06/18 16:30
FT4		8.007	ng/dL	L	0.35 - 4.68	06/30 16:58
TSH		0.007	uIU/ml			
WBC		3.83	x1000/mm <sup>3</sup>		3.53 - 9.34	06/30 12:57

▲ 기도받기 전 :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고 있는 소견(2020.6.30)

검사번호	16024196	검사지			
환자명	고리연 (29/F)	확인자			
진료과	내과(-)	환자일시	2020-12-21 09:45		
의뢰 의사		보고일시	2020-12-21 15:24 (OD : 2020-12-21)		
검사항목	검사결과	단위	참고치	SPM	비고
EIA	Thyroid 3종				
	T3	80.3	ng/dl	60 - 170	12/21 1
	FT4	0.91	ng/dL	0.8 - 1.70	12/21 1
	TSH	1.690	uIU/ml	0.35 - 4.68	12/21 1

▲ 기도받은 후 :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됨(2020.12.21)





##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던 ‘거식증’의 늪에서 건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수정 자매 (일본 동경타바타만민교회, 14세)

2017년 11월, 저는 체력을 키우고자 매일 30분씩 달리기와 근육운동을 하였습니다. 꾸준히 하니 몸이 날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도 좋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다이어트 책을 읽으며 점차 운동량을 늘리고 식사는 줄여갔지요.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저의 이런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식사량은 줄고 더 많은 운동량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의 한계점을 늘리다 보니 과도한 체중 감소와 영양 부족으로 여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한 운동량으로 발톱에 피가 고여 새까맣게 되었고 몇 번이나 발톱이 빠졌으며, 딱딱한 바닥에서 근육운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심각한 정도로 꼬리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또 발뒤꿈치에 피부가 심하게 벗겨져 매우 고

통스럽기도 했고, 발목 부분의 근육에 염증이 생겨 통증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요.

날씬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여 많이 울기도 했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도 불안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급기야 그 당시 저는 키 150cm에 체중이 31kg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거식증’이었고, 아버지 정경태 담임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만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살이 찐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저는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량을 더 늘리고 물을 마시는 것도, 침을 삼키는 것도

거부하였으며 조금의 음식을 먹는 것조차 두려웠지요. 그렇지만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계속 받으면서 조금씩 제 생각이 바뀌어갔습니다.

점점 더 고통과 불안한 마음이 더해지면서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너무나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지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생활이 변화되니 음식도 점차 먹을 수 있게 되어 결국 다이어트라는 강박 속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아주 가볍고 음식도 맛있게 잘 먹으며 건강합니다. 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식증의 늪에서 건져 주시고 건강과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손수건 기도로 신속히 치료됐어요”



에스나스 무타니 성도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55세)

저는 코로나로 인해 고향에 내려갔다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나이로비로 돌아왔습니다. 1월 3일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날부터 하우스키퍼(가정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발열, 마른기침, 피로감 등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저를 방에 격리시키고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1월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저는 곧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과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전화를 통해 정명호 담임목사님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고백하며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습니

다. 그 뒤 고열과 심했던 피로감이 사라졌고, 3일 후 음성 판정을 받았지요. 주인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주인은 흔쾌히 저의 코로나 검사비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느끼며 매우 행복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어머니가 직장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 중이셨지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제게 감기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나니 그제야 코로나 확진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 20일 검사 결과, 아버지와 저는 코로나 양성이었습니다. 가벼운 증상만 있었기에 병상이 날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23일, 부모님과 제가 고열과 호흡 곤란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24일, 저는 담임목사님께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습니

다. 그 뒤 조금씩 호전되어 다음날 다시 한번 기도를 받았지요. 12월 28일 검사 결과 저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하였으며, 부모님도 곧이어 퇴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호전된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치료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레산 타스 성도 (말레이시아 셀랑고만민농야교회, 33세)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반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창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